

## ‘책바치’ 정신 빛나는 우리 식물 길잡이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풀백과사전》 이유미, 서민환 글·이원규 사진 | 현암사 | 248쪽 | 값 38,000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는 브랜드 네임으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단연 압권에 속합니다. 《법전》으로 상징되는 현암 조상원 선생의 이미지가 그의 아들 조근태(현 대표)를 지나 기획자 형난옥으로 중첩되어 지나가는 지점에 바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열대에서 쉬 사라지지 않는 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들의 책바치 정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 선을 보인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풀백과사전》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의 과생 네이밍으로 나온 것입니다만 이 책은 현암사의 책 만드는 내공에 약간 질리게 만드는 요소를 몇 가지 안고 있습니다. 일견 평범한 듯한 양장제본 표지를 넘기고 나면 두 쪽에 걸친 ‘일러두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11가지에 걸쳐 일러두고 있는데, 일종의 자신감입니다. 어떤 자신감인가 하면 이 책에 나오는 식물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풀로 선정된 280여 종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식물을 소개하는 책도 많지만 이 책의 가치는 그 입체성에 있습니다.

토박이 식물 도라지를 예로 들어봅니다. 도라지를 설명하는 데 8장의 사진을 썼습니다. 꽃 모습은 꽃이 피었을 때와 꽃봉오리가 되었을 때로 구별돼 있고, 열매는 여러 열매를 함께 소개한 사진과 근접촬영한 사진으로 구별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땅 속에 내린 도라지 뿌리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흙을 살살 걷어내 자연 그대로의 뿌리내림을 사진에 담은 것입니다. 물론 도라지 꽃이 만개한 풍경사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도라지가 자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얇게 내릴 때 사진 작가가 도라지 곁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글을 쓴 이는 그 단계마다의 생태학적 특성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만 아마도 한꺼번에 설명하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진이 놓여지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사진가와 저자가 팀을 이루면 계약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완성도를 요구할 뿐 특별히 마감을 재촉하지 않는 현암사 고유의 시스템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암사는 보도자료에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사진촬영에만 10년을, 편집에만 2년을 ‘투자’ 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진 좀 ‘응석’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현암사는 이미 7년에 걸쳐 《쉽게 찾는 내 고향 민물고기》를 만든 전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풀백과사전》의 옥의 티를 한 가지만 얘기해야겠습니다. 책이 좀 무겁습니다. 커버를 씌워 사발저울에 올려놓았더니 1.9킬로그램이 나갑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면 별 탈이 아니겠지만 어린이들이 책 들고 나들이 갔다 오면 알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

임동헌기자